



Vietnam

하노이지사

베트남에서 인기몰이 중인 한국산 해초



건강에 관심 높은 베트남 소비자들

최근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달리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베트남의 브리딘후에 경제부총리가 베트남의 2019년 GDP 성장률을 7% 이상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할 정도로 최근 베트남 경제는 매해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베트남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 경우, 맛을 넘어 성분을 꼼꼼히 따져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산 해초는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항산화물질 등이 함유된 한국산 해초는 이온작용으로 인해 젊고 생기있는 피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소개된다. 또한 환경오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등 피부노화를 늦추는 작용뿐만 아니라 높은 미네랄 함량을 통해 건강한 모발 유지, 낮은 칼로리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등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매해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고 있다.

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한국산 해초

현재 한국산 해초는 말린 것부터 시작해 스낵으로 가공된 형태 등 다양한 식품으로 베트남에 들어오고 있다.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하여 수프 등의 요리재료로 쓰이고 있다. 호치민 소재의 수산물 농협국(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에서는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삶(Better Food, Better Life)’을 슬로건으로 하여 해초를 포함한 한국 해산물을 철저하게 확인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해산물을 재료로 한 요리교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산 해초에 대해 관심이 높은 만큼 한국의 수산물 원료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을 밝혔다.

| 베트남에 판매 중인 한국산 김 |



호치민시 5군에 위치한 투히엔(Thu Hien) 수출입투자회사 대표인 투히엔 씨는 한국에서 더 신선한 해초를 공급받기 위해 독도까지 방문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독도의 깨끗한 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투히엔 대표는 “특히 한국의 파래 개발에 관심이 있다”며 “우리 회사는 현재 10여 종의 한국산 해초제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매달 들여오고 있으며 수입 제품은 즉시 포장하여 보관된다”고 밝혔다.

Key Point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베트남 시장을 적극 공략해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문화 허브 국가로 성장 중이다. 김과 같이 보다 대중적이면서도 맛과 영양이 풍부한 해초식품을 앞세워 베트남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간다면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